

신종코로나 확산 때 '국외연수' 떠나고 귀국해서는 '격리 휴가'

보성·장흥군의회 의원·공무원 등 10명 유럽 연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무렵 해외연수를 떠났던 전남 보성군과 장흥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귀국 후에는 '자가격리 휴가'에 들어가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11일 보성군과 장흥군에 따르면 보성군의회 의장과 장흥군의회 의장, 양 군청 공무원 8명 등 10명이 지난달 29일부터 10박12일 일정으로 유럽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양 군수들은 '신종 코로나'를 의식해 국외연수 일정을 취소했지만 의장과 다른 공무원들은 신종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다음 날 해외로 출발했다.

연수의 목적은 해양문화사업과 지역관광사업을 접목해 새로운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전남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산업의 연계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이들이 찾은 곳은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투, 스페인의 마드리드

와 세비아, 발렌시아, 마야스, 그라나다 등으로 해양 연안도시는 물론 내륙 관광지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이 사용한 경비의 총 6400여만원으로 의장들에게는 비즈니스석을 포함한 1200만원씩, 공무원들에게는 600여만원씩의 예산이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연수를 강행한 이들은 귀국 후 10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같은 자가격리에 대해 해당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 군수의 재량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지난해 실시한 해양개발 용역의 결과물을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진행할 각종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 어렵게 일정을 잡았다"며 "위약금 문제도 있고 불과 하루 이틀을 앞두고 상대방 현지와 약속된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보성군 연수단의 경우 일정을 취소할 경우 전체 경비 3600만원의 약 30%인 1100여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반면 비슷한 시기 국외연수를 다녀온 전남도의회는 정상 출근해 대조된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의원 7명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 4명은 지난 1월28일부터 2월5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을 방문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 7명과 교육위원회 1명, 농수산위원회 1명 등 9명의 도의원과 직원 3명도 같은 기간 독일, 헝가리, 체코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국외연수 참가자 모두 이상 증상이 없어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했다"며 "의원들도 12일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코로나' 여파 졸업·입학식 취소...화훼농가 '울상'

장미꽃·안개꽃 가격 하락

전남도 '플라워 데이'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일선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수요감소로 인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2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장미꽃과 안개꽃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양재동 화훼시장 경매 가격의 경우 장미꽃은 지난해 2월 1단에 1만3500원에 형성됐으나 올해 2월에는 1단에 5000원에 머물고 있다.

안개꽃도 지난해 1단에 2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7000원에 낙찰되며 1만3000원 가량 하락했다.

장미꽃과 안개꽃 가격 하락은



일선 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꽃 수요가 줄면서 화훼농가는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하는 형국이다. 전남 도내 화훼면적은 모두 746ha(1074농가)로 전국의 1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플라워 데이' 운영을 통해 가족·친지에게 꽃을 선물하고 공공기관에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2월14일 발렌타인데이에서도 초콜릿과 함께 꽃 선물을 하기를 전개한다.

허성은 기자

"순천 불법촬영 가해자에 중형을"

피해자 가족 등 탄원서 제출

순천의 '병원 불법촬영' 가해자가 2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아버지와 시민 700여명이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광주여성민우회에 따르면 피해자 아버지와 시민 753명은 전남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탄원서 753부를 제출했다.

광주여성민우회와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재판부에 "여성성에 대한 불법촬영 사건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판결이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정당한 판결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억울함에, 불법촬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에 응당하길 기대한다"며 "국민정서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아버지도 탄원서에서 "불법촬영은 제 딸과 같이 불안, 수치심, 고통 속에서 헤매이다 국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살인 행위"라고 호소했다.

특히 "불법촬영이 소중한 한 사람을 죽음에 내몰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존경하는 판사님께 호소한다. 그레이반 또 다른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해자에게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설승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순천 종합병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해 7월 순천의 한 마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동안 병원 탈의실과 승강기, 할인점, 어린이집, 면세점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31차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예비신부 B씨가 같은해 9월24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 단신 ●

여수 돌산서 화재로 모텔 전소...인명피해 없어

여수의 한 모텔에서 불이나 2층 규모의 목조 건물 전체를 태웠으나 모텔에 있던 사람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11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9분쯤 전남 여주시 돌산읍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26대와 소방관 300명을 현장에 투입 진화작업을 펼쳐 이날 오전 2시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현재 잔불 정리와 건축물 철거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불로 2층 규모의 모텔 314.2㎡가 전소되고, 인근 모텔도 일부가 불에 탔다. 불이 난 모텔에는 일반 투숙객 없이 주인 가족과 직원 등 6명이 있었으나 곧바로 대피했다.

바로 옆의 모텔에 있던 투숙객 5명과 직원 등 8명, 휴업 중인 또 다른 모텔 직원 1명도 피해는 없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주중인 관계로 불이 난 모텔에 투숙객이 없었고, 신고와 함께 인근 모텔 투숙객과 직원들도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진화 진화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구마 삶으려다" 가스 켜두고 잠든 사이 화재

11일 오전 5시18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원룸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다.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난 불로 A씨(37·여)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윗집으로 번지지 않았고, 윗집에 사는 건물 주인은 즉시 대피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

불은 주방 2.3㎡ 등 집 내부를 일부 태운 후 30분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27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은 A씨가 고구마를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 냄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새벽에 빌라 옆집 들어가 소주 2병 마신 30대녀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옆집에 들어가 '나가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퇴거불응)로 A씨(38·여)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광주 서구 빌라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B씨(22)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퇴거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집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잠시만 있겠다'며 B씨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

B씨는 사정을 듣고 잠시 문을 열어줬지만 A씨가 직접 사들고 온 술을 마시고 "그만 나가주시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귀갓길에 사온 소주 2병을 옆집에서 모두 마신 후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70대 운전 승용차 중앙선 침범 시내버스 충돌

11일 오전 7시4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SM6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충돌했다.

충격으로 버스가 인도를 침범, 가로등을 받았다.

이 사고로 SM6 운전자 A씨(72·여)와 버스 승객 1명 등 2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근길에 발생한 이 사고로 일대 교통이 30여분간 정체됐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화조 청소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